

2023년 [하계] 해외어학연수 설문지

학과: 스마트미디어학과 이름: 권 진 힝

2019년 해외 어학연수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바를 작성해 주시면 차후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빠짐없이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어학연수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①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②취업을 위해서 ③목적없이 참가 ④기타(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2. 어학연수 이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토익특별반, 토익사관학교 등 교육과정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1

3. 이번 해외 어학연수 과정을 친구나 선후배에게 얼마나 추천하시겠습니까? 2

①아주 많이 ②많이 ③보통 ④안함

☐ 전체 반응도

구분	매우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낮다	기타
해외연수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 연수 만족도

구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어떤점이...
연수국가	○					
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이 대부분 캐나다문화에 대한 수업과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되었음.
주말 프로그램			○			
강사진			○			
기숙사	○					
강의실			○			방음이 잘 되지 않아 다른 교실에서 강의 올 때가 많았음
식사		○				
편의시설		○				
기타()						

☐ 교육생 의견 (*반드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소감 및 건의사항	[좋았던점] - 새로운 경험을 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 - 홈스테이 하며 캐나다 현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점 - 현지 영어를 직접 듣고 말하며 습득할 수 있었던 점 [나빴던점] - 유튜브 영상으로 진행되고 수업의 난이도가 매우 낮았던 점 - 학교에서 안내해주는 인솔자도 없어서 학생들끼리만 출.입국을 하며 안내 정보가 매우 부족했던 점 [이것만은 꼭 개선해 주세요]
-------------------	--

	- 항공권, 연수비용 납부 공지도 납부 당일 날 들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있게 기간을 두고 공지를 해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 OT이외에 입국, 출국 등 모든 일을 학생들 스스로 처리해야하는 점이 당황스러웠습니다.
--	--

*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캐나다 어학연수 소감문>

	이름: 권진희 학과:스마트미디어학과 학번: 202062005
소감문	첫 홈스테이집에 도착했을 때, 홈스테이맘의 이야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막막함이 컸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몇 시간동안 대화도 가능할 정도로 영어 리스닝 실력이 급성장 한 것 같아 뿌듯했다. TV프로그램도 영어자막으로만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고, 영어공부의 흥미가 붙었다. 이 어학연수는 시작에 불과할 정도로 영어를 마스터해야겠다는 욕구가 불탔다. 홈스테이 가족들과 이웃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다. 그러기위해서는 이 연수가 끝났다고 해서 멈출것이 아니라 여기서 얻은 자신감과 레벨업된 리스닝,스피킹 실력을 가지고 영어공부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캐나다 사람들은 자유롭고 느긋했다. 모르는 사람들과도 안부를 주고받고 어떻게 입든 어떤 행동을 하든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이 한편으로는 매우 부러웠다. 그들도 그들만의 고충이 있겠지만 일에 치여사는 한국보다는 편안해보였다. 캐나다에서의 하루하루는 매우 알차고 행복하고 꿈같은 생활이었다. 아침마다 강가를 조깅하고 아침밥을 먹고 학교가기 전 이웃집과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학교 수업을 받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다 같이 집에서 싸온 점심을 먹고 학교 끝나고는 친구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저녁은 가족들 다함께 준비하고 먹고 10시에 잠드는 생활. 한국에서도 꾸준히 이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속 중이다. 캐나다의 생활은 나의 습관과 일상을 바꾼 것이다. 한국에서의 생활에서는 새로움을 찾기 어려웠다.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며 시간이 아까운 줄도 모르고 허송생활을 보낸 느낌이었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움이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음식 등등 그 속에서 적응하고 성장하는 나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느껴져 뿌듯함이 매우 컸다. 이 뿌듯함이 자존감을 성장시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자신감이 붙었다. 목표가 생기고 실행력이 높아졌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에 무서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신감이 생겼다. '말이 안 통하는 캐나다도 한 달동안 잘 갔다왔는데 한국에서 이정도야 뭐... 일단 해보자'라는 마인드가 생겼다. 두렵기도 설레기도 했던 한 달간의 캐나다 생활이 모두 끝났다.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것 같다. 앞으로의 방향성과 삶에 대한 열정이 생겼다. 캐나다로 떠나기 전 나의 인생은 크게 목표도 없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그 동안 내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생각도 들었다. 세계로 나가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활동사진>

